

이정우

FRONT-END DEVELOPER 1995.05.02. (만 25세) 010-9522-0890 awmaker@kakao.com 서울시 용산구

자기소개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것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군 시절, 군사령부의 행정 병으로 근무했던 부대 내 사무실에서는 수기 위주의 업무처리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 러한 환경을 사무자동화를 통해 개선하고 싶어 엑셀의 도움말을 참고하며 프로그래밍을 배워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흡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간부님들이 사용하신 뒤에 불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기존의 처리 과정을 무시하고 제가 효율적이라 생각한 과정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간부님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분석한 뒤, 과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효율성 있게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새롭게 만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고 1년간 부대 내 모든 사무실의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여 부대의 야근이 사라지고,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부대 전투력이 증진되었다는 이유로 특별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기술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에 사용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킬 활용정도

"JavaScript"

꾸준한 학습으로 JavaScript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했으며, Web API를 이용해 Audio visualization을 제작하거나 WebGL, 비동기 통신을 이용한 프로젝트 경험 또한 많습니다. ECMA의 최신 문법을 자주 확인하며, 코드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React"

React를 이용한 프로젝트 경험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야입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와 회계관리 플랫폼을 React로 제작하였습니다. Typescript를 이용하여 React를 사용한 경험도 있으며, Hook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Redux"

액션과 스토어를 이용해 기본적인 상태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dux-saga를 이용하여 미들서버를 만들어 비동기통신을 한 프로젝트 경험도 있습니다.

"Rest API"

Serverle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AWS를 통해 JWT인증을 포함한 Rest API 백엔드를 구현하고, Gitbook을 통해 문서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CSS"

디자인을 전공한 덕분에 CSS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CSS3의 방법론과 사용 방법을 알고 있고, SMACSS 방법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Google의 Material Design 명세에 따라 CSS로 반응형 스타일 및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ASS를 이용하여 HTML의 구조도와 유사하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여 직관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HTML"

많은 프로젝트 경험으로 자주 사용했기에 HTML5 구조를 설계하는 법은 자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작성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역량

"제너럴리스트에 스페셜을 더하다."

회계장부 관리 플랫폼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획과 디자인, 개발팀을 꾸리고 직접 프론트엔드 개발, AWS 기반 아키텍처 설계, UI/UX 설계, 퍼블리싱, 기획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획 의도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개발할지 팀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타겟층이 비전문가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단순해 보이도록 구성하려 했지만, 개발팀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위한 많은 조작 버튼이 필요했고, 디자인팀에서는 두 가지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전공과 많은 프로젝트 경험으로 생긴 기획, 디자인, 개발 지식을 바탕으로 팀 간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발팀에는 미니멀리즘 개념을, 디자인팀에게는 CSS 기능을 이용한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능을 나열하기보다는 사용하기 적절한 위치에 각각 최소화해 두었다가 마우스 커서가 가까이 가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야 간의 원활한 소통은 회사에서 완벽한 협업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 기획과 UI/UX 설계 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실력을 더욱 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고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회사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더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치관

"이타적인 향상심을 품다."

제 학습 비결은 대학 시절 개발자인 친구가 프로그래밍 질문에 항상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답변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기초가 탄탄해지고, 근거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선순환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 친구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팀원과 함께 성장하며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회사에서 이어나갈 선순환은 더 뛰어난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